선민 속에 자생한 악의 영성

(열왕기하 21:1~9)

1.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2.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4.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5.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6.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7.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8.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9.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꾐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선민 속에 자생한 악의 영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선민 속에 자생한 악의 영성'

'영성'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추렴하기가 쉽지 않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쉽게 생각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성(母性)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속성이고, 사회성(社會性)은 인간이 사회에 대해 갖는 속성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성(靈性)은 영이신 하나님께 갖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악의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악의 영성’이라는 말을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해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신 사탄들도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큰 영성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나 그 양상이 적대적이라는 점에서 악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적인 악의 영성이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민그룹 안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대적하게 되는데 이러한 악의 영성들이 선민들 안에서 자생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가 악의 영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의 영성으로부터 나온 통치 행위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악의 영성이라는 말을 놓고 보면 ‘좀 미흡한 영성, 부족한 영성, 작은 그릇의 영성의 소유자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악의 영성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악의 영성에서 비롯된 행위들을 보면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지만 말씀 상으로는 므낫세의 행위를 기점으로 그 멸망이 더욱더 확정적으로 예고됩니다. 그렇다면 이 므낫세의 영성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14대 왕입니다. 13대 왕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성군 히스기야 왕입니다. 므낫세는 그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죽고 십이 세에 즉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십오 년의 수명을 연장 받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수명을 연장 받은 3년째에 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자 유다는 앗수르의 완전한 속국이 되어서 정치 종교 문화 등의 제 분야에서 앗수르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어린 왕이 성장과정에서도 그러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십이 세의 므낫세는 왕위에 올라 본문에서 보았던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무척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이 므낫세의 학정 아래에서 많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고, 이사야 선지자 또한 톱에 켬을 당하여 순교한 것으로서 유대 전승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므낫세의 하나님을 대한 패륜적 악행을 열거하는데 참담한 심정이 들 정도입니다. 이 행위들에 대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라는 제목을 정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한 것은 솔로몬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이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멸망한 북 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인 풍요와 다산의 신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섬겼습니다.
일월성신은 앗수르나 바벨론 지역에서 횡행했던 우상 숭배였는데 세상의 형통을 관장하다고 믿어지던 하늘을 형상화한 우상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4~5절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라고 합니다.
성전 바깥에는 이미 일월성신을 위한 제단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록제사를 드렸고, 점치고 사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끌어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우상숭배의 박물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알 신의 어머니로 여겨지는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기까지 했는데 이처럼 므낫세는 악한 방향으로의 영성이 보통 탁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므낫세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단순히 여호와의 성전을 훼손한 것으로 지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바깥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숭배를 하며 일월성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것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전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활성화시키고 성전에서의 예배를 생활화시킨 것인데 이 점이 굉장한 일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도 므낫세의 악행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의 영성과 므낫세의 영성을 비교해봅니다.
다윗 이후로 솔로몬이 노후의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 13대 왕이었던 히기스야는 가장 뛰어난 여호와 신앙의 지킴이였으며 대단한 영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영성도 히스기야에 못지않은데 다만 방향이 악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영성은 한 마디로 이론믿음을 현장믿음으로 전환시키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현장믿음을 가지고 살던 모습으로부터 우리에게 등장하였기에, 보다 우리에게 가

까운 사람은 히스기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이론믿음을 현장믿음으로 전환하는 일에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론믿음은 천지를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1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자면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존재였기에 아브라함의 생의 의미는 이삭에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이삭을 제단에 바칩니다. 그렇게 소중한 이삭일지라도 하나님의 관계보다 우선적인 관계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믿음은 이러한 이론믿음을 현장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첫 번째로 관계맺음을 직장과 사업장과 대인관계와 가족에게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영성이었습니다.
삶에 현장에서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늘 발생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취했던 침묵의 발빰기도는 나라를 진멸시킬 만큼 위협적인 앗수르의 2차 침공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임을 고백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1위이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앗수르의 2차 침공에 대해서도 마음이 죽고 침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고 히스기야의 생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영성은 이와 완전한 반대입니다.
선민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지만, 선민 바깥의 이방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나 건강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또는 사업이나 교회의 부흥이나 자녀의 형통을 사랑합니다. 명예가 훼손되면 자살할 정도로 명예를 중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므낫세는 이렇게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이방인의 마음 상태를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히스기야 전까지는 선민들이 성전에 가끔 들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하며 세상의 가치인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연히 성전에 대해서는 소원해지고 고립되어 성전의 활성화는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므낫세 대에 이르러 그 성전조차 내버려두지 않고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성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멀리 다른 제단을 찾아갈 필요 없이 성전의 안쪽과 바깥쪽 뜰에 제단을 두 개씩 세웁니다. 본래의 의미와는 반대로 여호와 성전을 활성화시켜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영성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이름을 붙잡고 침묵하므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백역사의 삶을 사는 것이 과제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므낫세의 영성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이론 바깥에서 이미 마음의 지성소에는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붙잡고 있었으며 이것을 성전 안으로까지 끌어들여서 유지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교회에 적용시키면 강단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부자 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으며,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설교들이 바로 므낫세의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꾐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교인이 아닌 자들보다도 더 부자 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고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를 추구함이 더 강렬하여서, 마음의 지성소에서 붙잡은 세상의 가치들을 그대로 성전 안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오면 잘 산다고 하고 병도 고치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옛날에 영락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의 명함에 영락교회 장로라고 새겨서 다녔다고 합니다. 교회의 장로자리를 사회의 벼슬처럼 여기고 강남의 소망교회는 엘리트들의 모임쯤으로 여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1번가 소리도 들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므낫세 영성입니다.
이처럼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정도로 예배당을 활성화시킨 영성이 므낫세의 영성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의 근원은 부자 되고 싶은 풍요와 다산의 마음입니다. 옛날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피해서 멀리 있는 바알 성전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모든 우상의 체제를 다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새 예배당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다 끌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노래나 테니스나 등산 동호회도 있고 장사도 하는 등 수많은 소모임이 있습니다.
대체 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은 히스기야의 영성을 따라서 세상을 살 때에 놓쳐버린 하나님과의 제1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번제단에서 양을 죽였던 것처럼 내 마음에서 세상과 맺고 있던 관계들을 십자가를 통해 다 죽이고, 예배당에서 나갈 때에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1관계로 회복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앗수르의 2차 침공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 사건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적인 현실임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수행해 나가는 것이 선민의 영성인데 므낫세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세상과 묶인 마음을 교회 안까지 밀고 들어오게 하여 강단에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가 성전 안에서 각종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한 것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대형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이 므낫세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와 묶였음에 착안하여 그 상태를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게 하여 완전히 타락시켜서 활성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교인이 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영성을 회복하십시다. 므낫세의 영성 소지자들의 목회 세미나에 가서 배울 것은 악행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는 미국교회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다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이것들이 므낫세의 영성이므로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활성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은 진리의 척도가 아닙니다. 므낫세는 어느 왕 때보다도 여호와의 성전을 활성화시켰지만, 내용적으로는 여호와 성전의 존재 의미를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부흥하고 발전해서 초대형 교회가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곳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존재 의미를 지상에서 깡그리 지우는 중인데, 계속해서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곳에서부터 배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입니다.
자생하는 악의 영성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1현실로 인정받으시는 상태를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성과를 강요하는 회사의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1현실로 인정할 것이냐에 몰두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요셉처럼 흑역사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백역사가 나를 통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므낫세의 영성을 십자가 생활화로 죽이게 하옵시고, 히스기야의 영성을 회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으시는 백역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